

KATECH Insight

- ◆ (세계) 2023년 세계 신차 판매량은 공급망 문제 완화로 대기 물량(back order)이 해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미약하게 증가하겠으나,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완성차 신규 수요는 감소할 전망
- ◆ (국내) 국내 완성차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미국·유럽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내수는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예상이나 수출과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

■ 2023년 세계 신차 판매는 상저하고(上低下高) 속에 사전주문수요가 뒷받침해 증가할 전망

- '23년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 민감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여건이 조성
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인플레이션, 금리인상, 러-우 사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'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.9%(7월 발표)에서 2.7%(10월 발표)로 0.2%p 하향
 - *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보다도 낮은 2.2%로 전망
 - 미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 가능성,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 자동차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 발생 불가피
- 글로벌 주요 분석기관*들은 신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기물량을 고려하여 '23년 세계 신차 판매가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* IHS, LMC Automotive, Cox Automotive, Just Auto 등
 - '22년 전 세계 판매량은 8,150만대 수준으로 예상하고, '23년 전 세계 판매량은 올해와 비슷한 8,170만대에서 최대 4.7% 증가한 8,530만대 사이로 전망
 - 금리 상승, 경제 침체 등으로 신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수백만 대의 누적 대기 물량(back order)을 고려하여 판매량 증가를 예측한 것으로 추정
 - * 다만 IT산업의 침체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병목현상이 다소간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, 경기 위축으로 투자 계획을 수정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車 반도체를 증산할지는 미지수
- 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세계 자동차 판매 수준으로의 회복은 빨라야 '25년에 가능
 - 세계 자동차 수요는 '17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'18년 감소하고 코로나-19 사태로 촉발된 공급난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으며, '21년에는 전년대비 5% 증가했지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유가와 금리마저 상승하자 최근에는 감소세로 전환
 - 반도체 등 자동차 관련 공급망 문제는 '24년 경 해소되고, '25년에는 전기차가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9,700만대까지 회복 전망
 - * 세계 전기차(BEV, PHEV, FCEV 포함) 수요는 올해 900만 대를 넘어서고, '23년에는 1,2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 '25년에는 2,0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·유럽의 수요 급변 가능성에 따라 2023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 증대

- (희망적 시나리오)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와 코로나-19로 인한 역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을 경우
 - 현재 국내 완성차사의 이월주문 물량이 수십만 대에 달하고 있어서 내수, 수출, 생산에서 비교적 견조한 성과를 보일 전망
- (보수적 시나리오) 세계 자동차 수요의 70%를 차지하는 유럽, 미국과 중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와 둔화 국면을 보일 경우
 -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가운데, 금리가 치솟아 중산층 이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급감할 가능성이 제기됨
 - 또한 국내외 수요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 대형 및 고급 모델과 전기차 생산은 증가하겠지만 중소형 이하 모델 생산이 감소하면서 완성차 공장 가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* 이는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의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성과 재악화 우려

■ 2022년 호조였던 국내 생산은 2023년에는 미국·유럽 수요 감소로 소폭 반락 전망

- '22년은 국내 완성차사의 미국·유럽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360만 대로 전년 대비 3.9% 성장할 것으로 추정
 - * '22년은 완성차 수출 실적이 두드러짐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화될 경우 '11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해가 됨
- 보수적으로 전망할 경우, '23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국·유럽 자동차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·생산이 소폭 감소하고, 내수는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
 - (내수) '22년과 유사한 약 166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되며, 감소 물량 중에서는 국산차 보다는 수입차의 감소율이 두드러질 전망
 - (수출) 미국 신차 수요가 소폭 감소하고 EU는 경기 침체와 에너지난으로 신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4.2% 감소 전망
 - (생산) 주로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아 국내 생산도 '23년에 전년 대비 3.0% 감소 전망

■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과 전망 (단위: 만대, %) ■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내수	175 (-10.1%)	167 (-4.7%)	166 (-0.5%)
국산	144 (-10.6%)	139 (-3.6%)	138 (-0.3%)
수입	31 (-7.9%)	28 (-10.8%)	27 (-1.3%)
수출	204 (8.2%)	220 (7.7%)	210 (-4.2%)
생산	346 (-1.3%)	360 (3.9%)	349 (-3.0%)